



다시 기독교자들의 헌신이 요청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독교대안학교들의 외침—

오춘희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 학문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어느 민족 가운데 교회를 불러 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의 시대와 민족의 형편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응답하게 된다. 1980년대 한국의 대학가 학문의 장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연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학문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예수 천당이라는 말만으로 전도가 되었던 기독교 전래 초기와 달라진 1980년대의 사회 속에서 개신교 선교 100주년과 맞물려서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성들이 고조되었었다. 복음의 뜨거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헌신이 강조되게 되었고, 학문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학문에 대한 책무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고백하듯이, “주일에만 그리스도인

이고 강의실에 들어갈 때는 신앙은 따로 두고 들어가느냐”고 도전하신 대천덕 신부님의 강한 권면에 기독교인인 삶과 학자의 삶을 이중적으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학자로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교육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던 나도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기독교적 교육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의 학교교육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성경을 떠난 인류의 문화와 학문이 만들어 낸 곤경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기독교 대학과 대안학교

1985년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라는 긴 이름으로 결성된 단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각 학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대학을 함께 꿈꾸었다. 마찬가지로 초중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학교에



기독교대안학교들은 무엇이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인지,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기독교적인지, 교육과정이나 교재, 교사의 훈련 등의 한계로 단위 학교 내에서도 일관성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 1980년대 그것은 불가능한 꿈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 한동대학교가 기적적으로 설립되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는 교육 현실 속에서 한국사회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화하여 기독교대안학교가 하나 둘씩 출현하게 되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로 기독교대안학교의 수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 정확한 수를 말하기 어렵지만, 2011년 현재 적어도 50개 이상의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의 어려움

사실 한국에서 기독교대안학교의 등장은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가장 큰 열매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가르친다고 하는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과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무엇이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인지,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기독교적인지 각 학

교마다 나름대로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이나 교재, 교사의 훈련 등의 한계로 단위 학교 내에서도 일관성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어떤 학교들은 외국의 유명한 기독교교육과정 패키지를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거나 참고하여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이해와 문화가 다르기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학교가 아닌 이상, 대다수의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 대안학교에서 해외에서 개발된 기독교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교들은 국가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교육과정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채택할 경우 대안학교들은 진정 하고자 하는 교육에 소홀해진다.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면, 나중에 빠진 부분이 생겨서 이후의 교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단위학교별로 교육과정이 달라서 학교들 사이에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한국 기독교대안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과정의 개발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한국 기독교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들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과정은 한국의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의 폭과 깊이를 포괄하면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세계관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재개발과 교사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각 교과별로 전문학자 집단과 출판전문가와 현장교사 등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위학교의 규모를 훌쩍 뛰어 넘는다.

독수리학교에서 여러 해 교사교육을 담당해 오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각 교과별로 교사들의 질문에 답하고 함께 고민할 전문 학자들의 협력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과내용을 재해석하고 지도해줄 각 과목의 기독교인 학자들이 정말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의 의문과 요구를 실제로 연구해줄 각 교과 영역의 대학원생들이 있어야 한다. 독수리학교는 어떻게 각 교과별로 전문학자와 대학원 이상의 연구생들이 대안학교 교사들과 모여서 장기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교육

과정 개발을 완성하기까지 네트워킹을 해나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

학자들은 교회일로 학교일로 바빠서 자신의 연구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현실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위해서나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 등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 기독교학문운동의 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기독교사들을 훈련하고 기독교대안학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각 교과별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세워진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진정한 기독교학교로 성장해 가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교육에 선한 영향을 주려고 세워진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오히려 지리멸렬해 지고, 결국 미션스쿨들이 공교육화 하였던 것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독교 학자들에게 제안한다

지금도 기독교대안학교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운동, 기독교학문 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점이 아닐까? 다년간 기독교세계관으로 전공학문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온 기독교자들이 기독교대안학교들을 도와야 할 시기가

한국교육의 전반적인 문화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독교사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사용하여 가르칠 교재와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기독교대안학교가 한국 사회 문화 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된 것 같다. 한국에서 진정으로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하는 기독교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기독교학문의 동역자들에게 두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첫째, 각지에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대안학교에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돕는 것이다. 각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기독교세계관 교사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학자에게도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현실성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각 학문의 영역의 전문가 집단과 교과별로 교사들의 집단이 함께 모여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모임을 시작하는 것이다. 기독교대안학교 연맹이나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같은 기관들과 연계하여 단위 학교들을 각 교과별로 선정하여 교육과정개발의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작이 순조롭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전체

교육과정이 완성되고 그에 따른 교재개발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대안학교 교사교육과 교육과정의 개발의 성공여부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협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독교학교들을 세우자고 말만 무성하게 하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뒷받침을 못해주고 세워만 놓고 알아서 운영하라고 단위학교에만 맡겨두는 것은 한국 기독교 공동체에게 오히려 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기독교대안학교를 위하여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 학문의 영역에서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훈련, 교재개발 등 현장과 연계된 헌신이 일어나야 한다. 한국교육의 전반적인 문화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독교사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사용하여 가르칠 교재와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기독교대안학교가 한국 사회 문화 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오춘희 연세대학교에서 교육철학, 교육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아세아연합신학대에서 기독교교육을 가르쳤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독수리학교 기독교학교연구소 소장으로 사역하고 있다.